

선행연구의 주제어 분석을 통해 본 노후준비의 의미

채 은 희*

요약: 이 연구는 채은희·박미숙(2019)의 선행연구에서 연구 자료로 사용되었던 176편의 논문을 활용하여 ‘노후준비’에서 나타난 주제어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얻은 결과는 노후준비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함의를 이끌어내는 것에 의의가 있다. 176편의 논문 중 주제어가 탐색된 논문은 총 156편이며 주제어 발생 건수는 659건이 되었다. 탐색된 자료 중 2건 이상 발생된 주제어를 분류 정리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어 나타났다. 예상대로 주제어 중 ‘노후준비’가 전체의 10.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삶의 만족도, 베이비부머, 경제적 노후준비, 노후준비도, 베이비부머 세대 순이었다. 또한 탐색된 주제어를 범주화하여 분류하였을 때, 노후준비 내용과 그 대상과 시기, 연구 분석 내용으로 나누어 나타남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준비에 관한 한국의 선행연구들은 노후준비가 개인적 차원에서의 삶의 만족도와 성공적 노화, 자기효능감 등과 연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후준비는 인간 삶의 질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후준비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더 나아가 개인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노력과 보다 더 이른 시기부터의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핵심어: 노후준비, 선행연구, 주제어 분석, 삶의 만족도, 베이비부머

Meaning of Preparation for Old Ag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Key Words of Previous Studies

Eunhie Cha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key words related to ‘old age preparation’ using 176 papers which were used as research data in Eunhie Chae & Misuk Park (2019). The results obtained through this study are meaningful in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preparing for old age and drawing appropriate social implications for it. Among 176 papers, 156 papers were found in which the subject words were searched, and 659 subjects were found. When the same subject words were found more than twice,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As expected, ‘old age preparation’ accounted for 10.8% of the total, followed by life satisfaction, baby boomer, economic old age preparation. Also, when the searched subject words were categorized and categorized, they were divided into old age preparation contents, subject and timing, and research analysis contents. Based on these results, it can be confirmed that old age preparation is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successful aging, and self-efficacy. The preparation of old age, which is most closely related to the quality of human life, should be educated at the national level. Preparation for old age requires preparation from an earlier time with personal effort.

Key Words: Old Age Preparation, Precedent Research, Keyword Analysis, Life Satisfaction, Baby Boomer

□ 접수일: 2019년 9월 3일, 수정일: 2019년 10월 5일, 게재확정일: 2019년 10월 20일

*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다문화교육과 박사과정

(Doctoral Course, Inha Univ., Email: shshmam@naver.com)

I. 서론

대한민국은 이미 2017년을 기준으로 64세 이상 노인인구가 14%를 초과하게 되었다(행정안전부, 2017).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가 이미 '고령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2026년엔 그 숫자가 20%를 초과하므로 곧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노인 인구의 증가는 고령사회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사회 현실에서 많은 노인문제들과 맞닥뜨리며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노인 문제 내용을 살펴보면, 농촌노인 문제, 치매노인 문제, 고령의 일자리 문제, 황혼육아 문제, 독거노인과 고독사 문제, 노년의 여가와 성(性)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어 나타나고 있다(제정임, 2013).

늘어나는 노인의 수와 함께 날로 높아지는 '노후준비'에 관한 관심은 노년기에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미래를 대비해야한다는(김미령, 2008: 35)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다. 노후준비는 노년의 안정적인 삶을 확보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지만, 준비의 시기가 노년기가 되게 되면, 노후준비는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노후준비는 노년기가 아닌 그 이전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가치관의 변화가 중년기부터 시작됨은 물론(김양이·이채우, 2008), 특히 경제적 노후준비는 중년기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이미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노년기에서는 노후준비의 의미가 상실 될 수 있기 때문이다(박현식·이선형·최은희, 2010). 그러므로 많은 연구들에서는 노년기에서의 노후준비보다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중년기에서의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채은희·박미숙, 2019).

노후준비 유형에는 주로 신체적 노후준비, 경제적 노후준비, 사회·정서적 노후준비로 나누어 설명하지만, 이 중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즉, 노후준비는 개인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그 중요도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으나 전반적인 중요도는 같다고 볼 수 있다(채은희·박미숙, 2019).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가장 최근의 연구에서는(송기영, 2018), 노인들은 현재의 삶에서 비록 경제적 여유를 갖지 못하더라도 신체 건강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주변인들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삶의 보람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인실태조사』(통계청, 2019) 결과 내용은 조금 달랐다, 10명의 노인 중 3명 정도만이 노후준비를 했다고 응답하였고 그 중요도는 건강한 신체와 경제적 여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화목한 가족관계나 친구관계, 여가활동과 종교활동은 그 준비도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1970년대 일본의 70대 노인이 고독사(孤獨死)

한 뒤, 그 시신이 9년 만에 발견된 사례가 전 일본을 충격에 몰아넣은 사건(제정임, 2013)을 보더라도 신체적, 경제적 노후준비와 더불어 사회·정서적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채은희·박미숙(2019)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Riss’¹⁾에서 ‘노후준비’를 검색하였을 때 나타난 500편의 논문 중, 분석조건을 통해 최종 176편의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이에 대한 결과를 도출시켰다. 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 내에서 이루어진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동향은 주로 남녀 중년기를 대상으로 한 전반적 노후준비에 관한 양적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여성이나 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의 확대를 강조하고, 몇 안 되지만 질적 연구의 내용을 탐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채은희·박미숙(2019)의 한국의 노후준비에 관한 탐색적 연구의 후속 연구로서 연구에서 도출된 176편의 국내학술지 논문자료를 토대로 노후준비에 관한 주제어 탐색을 추가시킴으로써 그 영역을 확장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채은희·박미숙(2019)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176편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그 안에서 나타난 주제어를 추가적으로 탐색하여 제시한다. 이에 나타난 결과는 현재의 연구들에서 노후준비에 관해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해보고 그에 대한 의미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미를 바탕으로 노후준비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와 그 대안을 이끌어냄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II. 한국의 노후준비

1. 노후준비의 정의 및 유형

인간 삶이 만족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건강한 신체, 여유로운 생활자금, 원만한 대인관계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에 정신분석학자인 Freud(1925) 역시 인간이 일과 사랑, 이 둘을 충분히 만족시켰을 때 비로소 가장 이상적이고 행복한 삶이라고 하였다(정옥분, 2011 재인용).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건강한 신체를 통해 과업(일)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성취

1) 학술지 통합검색 사이트인 ‘Riss’는 해외는 물론, 국내 학위논문, 학술지논문, 학술지, 단행본, 공개강의, 연구보고서 등을 검색하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감과 동시에 금전적 대가를 취하며, 사랑이라는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를 통해 심리적 만족감을 얻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노후준비 역시 신체적, 경제적, 사회·정서적 노후준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김영이·이채우, 2008).

노후준비에 관한 3가지 내용. 즉, 신체적 노후준비, 경제적 노후준비, 사회·정서적 노후준비에 관한 하위변인에 대해 살펴보자. 신체적 노후준비 하위변인으로는 과식하지 않고, 건강을 고려한 식생활 유지, 건강식품 복용, 지방과 당분 섭취는 적게, 건강진단 받기, 체력단련, 규칙적인 생활, 체중관리, 휴식, 금주·금연, 만성질환 조절, 건강상태 파악 등이 나타났다(박현식, 2013; 이경준·송희경, 2016). 경제적 노후준비 하위변인으로는 매달 저축, 정보 수집, 부동산 투자, 창업투자 의향, 역모지기²⁾ 의향, 보수가 주어지는 일을 할 의향, 개인보험 가입 의향, 근검절약 생활, 계획적 지출 습관, 생활비는 나 스스로가 해결, 주택 걱정은 없다, 아플 때 언제나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준비, 취미생활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경제적 여유 갖도록 노력 등이 나타났다(박현식, 2013; 이경준·송희경, 2016). 마지막으로 사회·정서적 노후준비 하위변인으로는 사회적 행사에 참여한다, 운동이나 활동에 참여한다,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여가활동을 규칙적으로 한다, 사람들과 자주 관계를 맺는다, 현재보다 미래가 행복할 것이라 믿는다, 사후에 천당이나 극락과 같은 세계가 있을 것이라 믿으므로 죽음이 두렵지 않다, 배우자와 더불어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한다. 언제나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상대가 있다, 마음을 편안히 가지려고 노력한다,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친구들과의 모임에 늘 참여한다, 근래에 와서 나의 장점과 능력개발에 힘 쓴다, 고독을 견디는 힘을 기른다, 가족상실에 적응하려 한다, 종교 활동에 참여한다, 노후의 취미생활을 준비한다(박현식, 2013; 이경준·송희경, 2016) 등이 나타났다.

안정적이고 편안한 노년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한 하위변인처럼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현대사회는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기대수명도 함께 높아졌지만, 이와 대비되는 저출산의 문제는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는 노인부양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물론, 자칫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고령화 시대의 안정적 노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와 개인의 노력이 절실히 보인다.

2) 모기지가 주택을 담보로 현금을 대출받는 것이라면, 역모기지는 주택을 은행에 맡겨놓고 생활비를 얻는 제도이다. 즉, 만 60세 이상(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으로 '주택연금'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한다(한국주택금융공사, 2019).

2. 선행연구 탐색

한국의 노후준비에 관한 가장 최근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채은희·박미숙(2018)의 연구는 'Riss'에서 '노후준비'를 키워드로 했을 때 나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국내학술지 논문 500편 중, 5가지 분석조건(성별, 세대별, 대상별, 연구방법유형별, 노후준비유형별)을 통해 최종 176편을 분석자료로 삼았다. 이로 인해 '성별' 조건에서는 남녀(84.7%) 모두를 포함한 내용이 가장 많았지만, 그 다음으로는 남성(02.8%)보다는 여성(12.5%)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다. '세대별' 조건에서는 베이비부머세대를 포함한 중년기 세대가 9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조건에서는 이주자집단(04.0%)보다 정주자집단(96.0%)이 훨씬 많았다. 정주자집단에서는 일반인 다음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았고, 미미한 수준이지만 이혼자집단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주자집단에서는 한국인 재외동포와 북한이탈민,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였고 '연구방법 유형' 조건에서는 양적연구가 90%이상으로 많았으며 질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이었다. 끝으로 '노후준비 유형' 조건에서는 신체적, 경제적, 사회·정서적 노후준비가 혼합된 유형(58.0%)이 가장 많았지만, 그 다음으로는 경제적 노후준비(25.6%), 그리고 사회·정서적 노후준비(08.0%)에 관한 내용이 많음이 확인되어 나타났다.

통계청(2019)에서 수집한 노후준비에 관한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인 정주자집단은 10명 중 3명 정도만이 노후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한 반면,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이주자집단에서는 10명 중 6명 정도가 노후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지혜(2015)의 질적 연구에서는 이들은 노후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이유로는 국가와 자녀에 대한 기대로 나타났다. 이렇듯 통계청 통계자료와 선행연구 자료의 상이한 결과내용은 이주자의 이주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따른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확인되어 나타났다.

반면, 한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그 내용이 조금 달랐다. 이들은 이미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상태이므로 경제적 노후준비에 관한 필요성을 덜 느끼는 반면, 교회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활동과 같은 교민이나 지역사회와의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현식·최옥자, 2012; 박현식, 2013; 이미영, 2017). 이와 같이 한국인이면서 필리핀, 독일, 뉴질랜드 등의 재외동포로서 이주배경을 가진 자들은 '이주(移住)'라는 보다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자기실현을 통해, 노후준비에 있어서도 보다 더 능동적이고 적극

적인 행위를 실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 내에 존재하는 이주자의 이주배경은 한국인 재외동포들과는 조금 다를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다시 말해, 재외동포들은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정착하기 위해 떠난 자들이라면, 한국의 이주자들은 돈벌이를 위해(외국인 노동자), 결혼을 위해(결혼이주여성), 또는 학문목적(외국인 유학생)으로 이주해 온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이주배경에 따른 노후준비의 내용은 상이하게 다를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바로 이러한 확인을 위해서라도 한국 내 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의 진행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인 재외동포들과는 다르게 한국인 정주자들은 경제적 노후준비를 가장 크게 준비해야 하는 노후준비 유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인은영·김찬우, 2015). 그러나 경제적 노후준비에 관한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박현식·이선형·최은희, 2010). 중년의 한국인 정주자들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더 큰 가치를 둔은 현재 이들의 재정상태가 위태롭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나지나 외, 2010). 경제적 여유의 경우, 노후준비는 물론 그 자녀에 대한 지원과도 연결됨이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이여봉, 2012), 경제적 노후준비를 통해 사회·정서적 노후준비의 확보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음은 물론, 신체적 노후준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영향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채은희·박미숙(2019) 연구의 후속연구로써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이들의 연구에서 분석 자료로 삼았던 176편의 논문을 다시 재탐색함으로써 그 안에서 주제어(key word)를 찾아내고 이를 통해 노후준비와 관련된 연구 안에서 연구자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노후준비의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이와 관련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함은 물론, 그에 따른 사회적 함의를 이끌어 내는데 의의가 있다.

채은희·박미숙(2019)의 연구는 ‘Riss’에서 ‘노후준비’를 키워드로 검색하여 발견된 2013년에서 2018년까지의 국내학술지논문 500편 중 5가지 분석 조건(성별, 세대별, 대상별, 연구방법유형별, 노후준비유형별)이 모두 충족되는 논문 176편을 최종 선정하여 그 결과를 도출시켰다. 이를 통해 한국 내에서 진행 중인 노후준비에 관한 전반적 연구동향 내용을 이해하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자료로 사용된 논문 176편 중 주제어가 탐색된 논문은 156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중 88.6%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주제어 탐색 논문 편수와 주제어 발생 건수 - 년도별

구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합계
주제어 탐색 논문 편수	19	29	28	26	31	23	156 편
주제어 발생 건수	87	129	122	107	118	96	659 건

주제어가 탐색된 156편의 논문에서 주제어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총 659건이 도출되어 나타났다. 이는 논문 1편 당 평균 4건 정도의 주제어가 탐색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013년에서 2018년 자료 중 논문 편수가 가장 많은 년도로는 2014년도(31편)지만, 주제어 탐색 건수가 가장 많은 년도는 2017년도(129건)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탐색된 659건의 주제어는 다시 분석 작업을 통해 분류·정리하였다.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면, 659건의 주제어 중, 237건이 2회 이상 중복 출현되어 나타남이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전체 중 36.0%에 해당하는 237건이 주제어 분석에서 2회 이상 중복 출현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총 659건의 주제어 중, 2회 이상 중복 출현된 237건을 연구결과로 활용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만약 2회 이상 중복되지 않은 나머지 422건에 대하여 분석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분명한 분석틀을 제공받지 않은 이상, 자칫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2회 이상 중복되어 나타난 237건의 주제어만으로도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따르기로 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주제어 탐색 - 년도별 분류

단위: 건

년도	주제어 내용 (2회 이상 중복 건수)	년도	주제어 내용 (2회 이상 중복 건수)
2018 년	노후준비(10) 삶의 만족도 (4) 성공적 노화 (4) 베이비부머 세대 (3) 노후준비도 (2)	2015 년	노후준비(11) 경제적 노후준비 (3) 노후준비도 (3) 삶의 만족도 (3) 베이비부머 (2) 삶의 질 (2) 생활만족도 (2)
	5 (23)		7 (26)

2017 년	노후준비(16) 삶의 만족도 (7) 생활만족도 (4) 1인 가구 (3) 경제적 노후준비 (3) 고령 장애인 (3) 라이프 스타일 (3) 베이비부머 (3) 감사성향 (2) 다인가구 (2) 사회적 노후준비 (2) 노후 삶에 대한 통합적 준비의 종단 효과 (2) 자기효능감 (2) 주관적 행복감 (2) 중년 남성 (2) 중년기 (2) 취업여부 (2)	노후준비 (8) 베이비부머 (5) 노후생활 준비 (4) 노후준비도 (4) 생활만족도 (3) 중년기 여성 (3) 경제적 노후준비 (2) 노후생활인식 (2) 사회활동 (2) 우울 (2) 은퇴 (2) 자기효능감 (2) 장애인 (2) 중년기 (2)
17 (60)		14 (43)
2016 년	노후준비(16) 삶의 만족도 (6) 매개효과 (4) 베이비붐 세대 (4) 베이비부머 (3) 2차 베이비부머 (2) X 세대 (2) 경제적 노후준비 (2) 라이프 스타일 (2) 문화자본 (2) 성공적 노후 (2) 은퇴태도 (2) 코호트 (2) 활동적 노년 (2)	노후준비(10) 경제적 노후준비 (3) 베이비부머 (3) 베이비붐 세대 (3) 중년층 (3) 노후준비도 (2) 삶의 만족도 (2) 성공적 노화 (2) 성공적 노후 (2) 은퇴 (2) 은퇴준비 (2)
14 (51)		11 (34)

IV. 연구 결과

채은희·박미숙(2019)의 선행연구에서 연구 자료로 활용되었던 176편의 국내학술지 논문 중에서 주제어 탐색이 가능한 논문은 156편으로 확인되었다. 156편의 논문에서 나타난 주제어는 모두 659건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논문 1편 당 4건 정도의 주제어 발생 빈도를 나타낸다. 이를 다시 같은 주제어 2회 이상 반복되어 나타난 내용만을 탐색하여 본 연구의 결과로 도출시키고, 주제어가 중복되지 않는 나머지 422건은 분석에서 배제시켰다. 이에

관한 내용을 분류하였을 때 다음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표 3> 주제어 탐색 - 전체

구분	주제어 (2건 이상 - %)		주제어 (2건)	
	2013년~ 2018년 전체	노후준비	71건(10.8)	노후 삶에 대한 통합적 준비의 종단 효과
삶의 만족도		22건(3.3)	감사성향	2건
베이비부머		16건(2.4)	다인가구	2건
경제적 노후준비		13건(2.0)	사회적 노후준비	2건
노후준비도		11건(1.7)	주관적 행복감	2건
베이비부머 세대		10건(1.5)	중년 남성	2건
생활만족도		9건(1.4)	취업여부	2건
성공적 노화		6건(0.9)	2차 베이비부머	2건
라이프 스타일		5건(0.8)	X세대	2건
자기효능감		4건(0.6)	문화자본	2건
중년기		4건(0.6)	은퇴태도	2건
매개효과		4건(0.6)	코호트	2건
성공적 노후		4건(0.6)	활동적 노년	2건
노후생활 준비		4건(0.6)	삶의 질	2건
은퇴		4건(0.6)	노후생활인식	2건
1인 가구		3건(0.5)	사회활동	2건
고령 장애인		3건(0.5)	우울	2건
중년기 여성	3건(0.5)	장애인	2건	
중년층	3건(0.5)	은퇴준비	2건	

예상대로 주제어 중 ‘노후준비’가 전체의 10.8%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삶의 만족도, 베이비부머, 경제적 노후준비, 노후준비도, 베이비부머 세대, 생활만족도, 성공적 노화, 라이프 스타일 순이었다. 이를 다시 내용별로 범주화하여 분류하였을 때, 노후준비, 대상 및 시기, 분석내용으로 나눌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이를 분류하였다. 이에 관한 내용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주제어 탐색 - 분류내용

구분	내용 (건수-%)	
	노후준비	노후준비
경제적 노후준비		13건(2.0)
노후준비도		11건(1.7)
대상 및 시기	베이비부머	16건(2.4)
	베이비부머 세대	10건(1.5)
	중년기	4건(0.6)
	노후생활 준비	4건(0.6)
분석내용	노후생활 준비	4건(0.6)
	사회적 노후준비	2건(0.3)
	노후생활인식	2건(0.3)
	중년 남성	2건(0.3)
대상 및 시기	취업여부	2건(0.3)
	2차 베이비부머	2건(0.3)

	은퇴	4건(0.6)	X세대	2건(0.3)	
	1인 가구	3건(0.5)	은퇴태도	2건(0.3)	
	고령 장애인	3건(0.5)	활동적 노년	2건(0.3)	
	중년기 여성	3건(0.5)	장애인	2건(0.3)	
	중년층	3건(0.5)	은퇴준비	2건(0.3)	
	다인가구	2건(0.3)			
	분석내용	삶의 만족도	22건(3.3)	감사성향	2건(0.3)
		생활만족도	9건(1.4)	주관적 행복감	2건(0.3)
성공적 노화		6건(0.9)	문화자본	2건(0.3)	
라이프 스타일		5건(0.8)	코호트	2건(0.3)	
자기효능감		4건(0.6)	삶의 질	2건(0.3)	
매개효과		4건(0.6)	사회활동	2건(0.3)	
성공적 노후		4건(0.6)	우울	2건(0.3)	
노후 삶에 대한 통합적 준비의 중단 효과		2건(0.3)			

‘노후준비’에 관한 범주에서는 노후준비 외에 경제적 노후준비, 노후준비도, 노후생활 준비, 사회적 노후준비, 노후생활인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상 및 시기’의 범주에서는 베이비부머, 베이비부머 세대, 중년기, 은퇴, 1인 가구, 고령 장애인, 중년기 여성, 중년층, 다인가구, 중년 남성, 취업여부, 2차 베이비부머, X세대, 은퇴태도, 활동적 노년, 장애인, 은퇴준비 등 주로 대상으로는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중년기를, 시기로는 은퇴기를 나타내는 경향이 포착되었다. 마지막으로 ‘분석내용’으로는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생활만족도, 성공적 노화, 라이프 스타일, 자기효능감, 매개효과, 성공적 노후, 노후 삶에 대한 통합적 준비의 중단 효과, 감사성향, 주관적 행복감, 문화자본, 코호트, 삶의 질, 사회활동, 우울 등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선행연구들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은 중년기를 대상으로 한 노후준비로 이는 인간 삶의 만족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예상했던 대로 주제어 탐색에서 ‘노후준비’가 가장 많았다. 노후준비라는 범주 안에서도 특히 경제적 노후준비와 노후준비도, 노후생활 준비가 의미 있는 결과로 도출되어 나타났으며, 그 대상과 시기로는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중년기와 은퇴기를 노후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로 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채은희·박미숙(2019)의 연구 결과와 비슷한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게 나타난 결과는 바로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와 연결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분석 내용에서 노후준비를 인간 삶의 만족도와 연결하고 성공적 노화, 성공적 노후,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자기효능감과 연결됨은 노후준비가 개인적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달리 표현하면, 노후준비에 있어 개인의 노력을 간과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노력보다 국가나 자녀에게 기대하려는 문제점(성지혜, 2015)과 노후준비에 있어 개인의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실천에 옮기지 못함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된 바와 같이(박창제, 2008), 노후준비에 관한 개인의 노력을 신장할 수 있는 노후준비교육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보다 의미 있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방법으로 노인뿐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죽음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같이(김용해, 2010), 중년기를 넘어 보다 이른 시기부터 의식적으로 준비하는 노후준비야말로 인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즉, 죽음교육이 인생을 바라보고 대하는 개인의 의식과 가치관에 보다 의미 있는 성찰을 부여하는 작업이라면, 노후준비는 다가올 미래생활을 보다 윤택하고 안정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개인의 준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그 시기와 대상의 폭을 확장한다는 의미에서 정주자뿐 아니라 이주자들, 특히 결혼이주자들에 대한 노후준비에 관한 교육을 통해 개인 생활의 안정적 확보를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채은희·박미숙(2019)의 연구에서 강조하였던 바와 같이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써 중년의 여성뿐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으로 한 사회적 현상과 인물, 그리고 그와 관련된 문제 등에 관한 심층적 탐색의 측면에서 질적 연구의 확대가 요구된다. 정리하자면, ‘노후준비’에 관한 국가적 개입으로써는 국민연금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노후준비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개인적 노력으로써는 노후준비인식에 관한 개인적 고양과 그 실천에 있다. 끝으로 학문적 노력으로써는 취약계층에 속하는 대상에 관한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후속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후준비의 실태와 함께 그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미령(2008),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 『한국노년학』, 28(1): 33-48.
- 김양이·이채우(2008), “중년층의 노후준비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9: 55-82.
- 김용해(2010), “죽음의 철학적 함의와 죽음교육의 필요성”, 『생명연구』, 18: 43-75.
- 나지나·백승애·신은경·김미혜(2010), “결혼 해체를 경험한 베이비부머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 여부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0(2): 29-54.
- 박창제(2017), “고령자의 재무적 노후준비 경향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1998년, 2002년, 2009년, 2015년 비교”, 『사회복지정책』, 44(3): 163-187.
- 박현식·이선형·최은희(2010), “충청남도 예비노인의 경제적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탐색적 연구: 거주 지역 고령화비율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5: 285-315.
- 박현식·최옥자(2012), “독일교민의 노후준비 실태가 성공적 노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3: 467-487.
- 박현식(2013), “필리핀 베이비부머 교민의 성공적 노후준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10): 302-312.
- 성지혜(2015),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생활 준비에 관한 연구: 대구지역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88(1): 83-115.
- 송기영(2018), “노인의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과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73(1): 469-503.
- 이경준·송희경(2016), “중고령자의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4): 757-769.
- 이미영(2017), “중년층의 노후준비 감사성향 및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 한국과 뉴질랜드 재외동포 비교연구”, 『한국웰니스학회지』, 12(3): 291-304.
- 이여봉(2012), “중년여성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베이비붐 세대와 이전세대”, 『가족과 문화』, 24(1): 31-70.
- 인은영·김찬우(2015), “중간소득 이하 중년층의 성공적 노화인식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44: 25-52.
- 정옥분(2011),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제정임(2013), “단비뉴스의 대한민국 노인보고서 ‘황혼길 서러워라’”, 경기도: 도서출판 오월의 봄.

채은희·박미숙(2019), “중년기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준비에 관한 탐색적 연구”, 『문화교류연구』, 8(1): 203-225.

통계청(2019), <www.kosis.kr.>.

행정안전부(2017), 『보도자료』(9월 3일).

